

<2012년 3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인생길을 찾고서 고생하면서 가는 자가 인생길을 못 찾고 헤매고 다니는 자보다 낫다.
2. 인생길을 찾아도 인생길을 가느라 고생된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찾지 말아라.
3. 성경에는 특히 성공한 자들만 많이 나온다. 성공한 자들을 보고 모두 성공하라고 특히 그들을 들어 말한 것이다. 실패자들을 많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패자들에 대해서는 가끔 교훈으로 말해 주었다.
4.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공한 자들만 특히 많이 나온다. 실패한 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실패한 자들에 대해 말하면 도움이 안 되기에 안 썼다. 고로 성경에 성공한 자들이 더 많다고 비율을 따지고,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믿되 제대로 믿어야 한다.
5. 사업하는 자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자는 많지 않다. 사업하여 성공한 자들만 책을 쓴다. 실패한 자는 책을 쓰지도 않는다. 고로 책만 보고, 자기도 사업만 하면 성공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6. 제대로 믿어야 구원에 성공한다.
7. 예수님을 믿었어도 구원 못 받고 끝난 자들이 너무 많다. 성경에 안 나온 자들이 너무 많다. 그 시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는 일부의 사람들만 나왔다. 물론 성공한 자들도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다.
8. 성공하려면 성공한 자, 표상자를 따라 그같이 행해야 된다.
9. 인간이 ‘영’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없다면 무슨 재미와 기쁨과 희망으로 살랴.
10. 사람이 ‘영’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무슨 가치와 희망과 기쁨으로 살랴.
11. 세상만 사랑하며 사는 자는 ‘영’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영’의 존재를 안 믿어도 재미있고 기쁘게 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마치 열매 없는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게 피우는 재미와 꽃만 피우고 마는 재미로 사는 격이다.
12. ‘영’에 대해 관심 없이 사는 자는 마치 육신이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가 남은 인생이라도 재미있게 사는 격과 같다.

13. ‘영’에 대해 관심 없이 사는 자는 그 영이 지옥의 선고를 받고 사는 자다. 그 육과 영은 이미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14. 어둠에 사는 그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기도하고 살면, 죽음의 선고에서 벗어나듯 사망에서 나온다.

15. 부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6. 지난날 내 육신이 전쟁터와 삶의 현장에서 꼭 죽을 것인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살려 주시어 30여 번 이상을 살았다. 이와 같이 내 영혼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죽음 속에서 살려 주시어 구원받고 살고 있다.